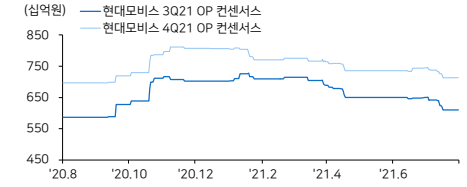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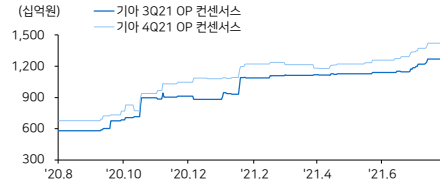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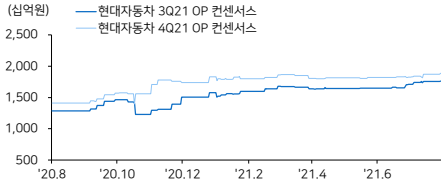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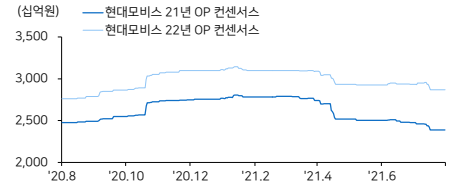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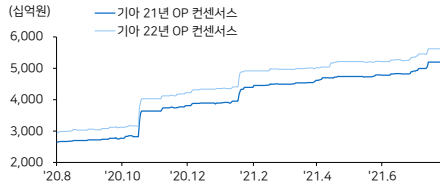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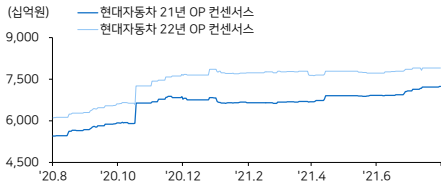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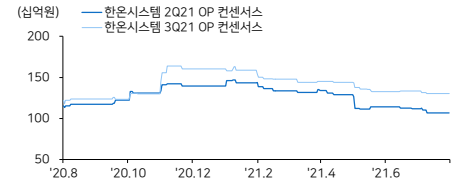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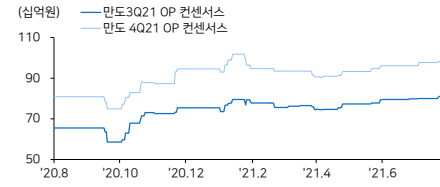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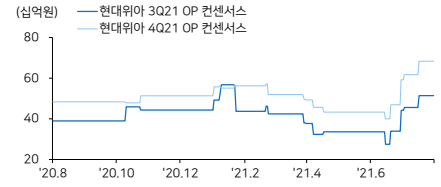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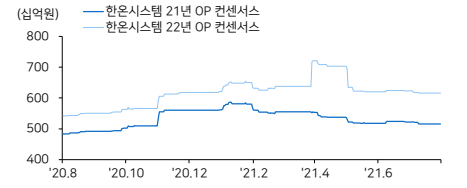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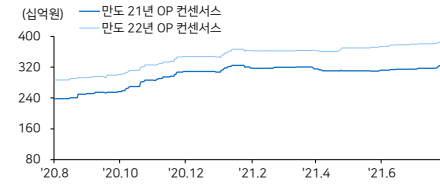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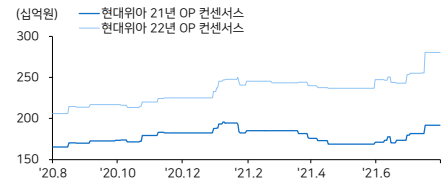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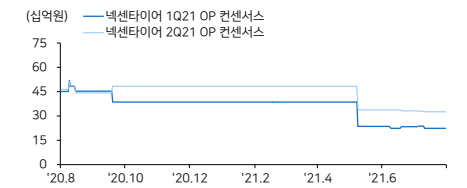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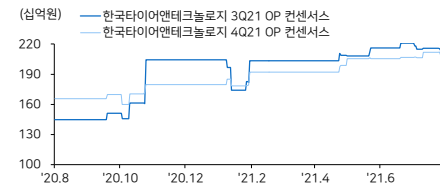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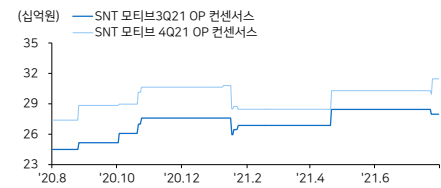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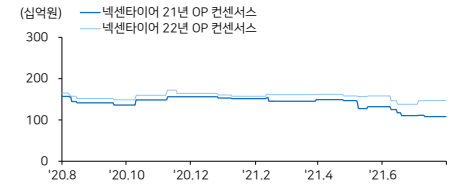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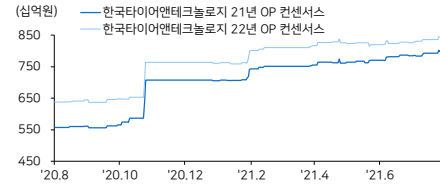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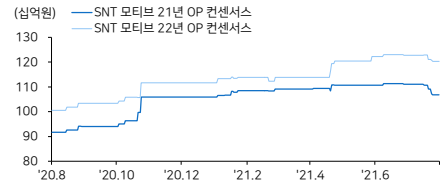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운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 모셔널, LA 자율주행 허브 운영한다... '아이오닉5' 로보택시 성공 (THE GURU)

모셔널은 미국 LA에 자율주행 운영 허브를 이달 말 오픈한다고 10일(현지시간) 밝혔다. 이곳에서 현대차 E-GMP 기반 전기차 '아이오닉5'를 활용, 로보택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며 공공도로 매핑을 진행할 예정이다.
<https://bit.ly/2VJ6WIN>

잡나가런 수입 전기차 판매량 20% '뚝' 왜?..현대차·기아는 질주 (머니투데이)

올 들어 호조세를 보이던 수입 전기차 판매량이 재고 소진으로 인해 하반기 들어 20% 이상 감소한 가운데,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은 YoY +227.6% 증가. 아이오닉5, 포터 일렉트릭, 봉고 EV, 니로 등의 모델이 전체 수요를 견인함.
<https://bit.ly/3yFdnWR>

현대차·기아, 하이브리드 SUV 전성시대...비결은 '터보HEV' (데일리안)

7월 현대차/기아의 HEV 중 SUV 판매량은 YoY 80.3% 늘어난 7,249대, 세단은 9.8% 감소한 6,247대를 기록하며 HEV SUV가 HEV 세단 판매량을 넘어섬. SUV 분야에서 약진한 결정적인 배경으로는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적용이 꼽힘.
<https://bit.ly/2XbYlOm>

LG·GM 얼티엄셀즈, 무한 확장 가능성...철도·항공 산업까지 (THE GURU)

철리 프리즈 GM 배터리사업 총괄은 "다양한 산업 분야의 운송수단에 대한 추진 시스템 제공 업체로 나설 수 있다"고 강조함. 자동차에 국한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관차 및 항공 등 새로운 운송 분야 확장을 위한 기술개발 가속화가 예상됨.
<https://bit.ly/3s60CqD>

벤츠·BMW도 할인하는데... 美 소비자, 제네시스는 웃돈 주고 산다 (조선비즈)

미국 현대차 제네시스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가시화되는 중. BMW는 올해 X5 가격을 평균 5.2% 할인 판매했고, 벤츠는 GLE 가격을 3.5% 인하하면서 첫 SUV 모델인 GV80은 0.6% 높은 가격에 판매됨.
<https://bit.ly/3s7jPrX>

현대차, 전기차 PNC·무선 충전 플랫폼 '출사포' (전자신문)

현대차는 전기차 충전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충전이 가능한 PNC 서비스와 올 하반기부터 일부 전기차 모델에 적용되는 무선 충전을 내세워 전기차충전 플랫폼 시장에서 진입 예정. 카카오톡, 티맵모빌리티, 티맵모빌리티 등과 경쟁할 전망이다.
<https://bit.ly/3JLda2H>

중 신에너지차 580만 대, 세계의 절반 (nbn)

올해 5월 말 기준 중국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전 세계 총 보유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580만 대에 달함. 176개 도시, 5만 km 이상의 고속도로에 계속 충전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등 관련 인프라도 지속 확충 중.
<https://bit.ly/3JLda2H>

바이든 정책에 화답한 نيسان..2030년까지 전기차 40% 목표 (데일리카)

니산이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판매량의 40%를 전기차로만 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. 바이든 정부 발표 내용에는 전기차 외 PHEV, FCEV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نيسان은 순수 전기차만을 고집한다는 목표.
<https://bit.ly/3iBLtu1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